



파리지앵 마카오 마카오에서 즐기는 파리의 낭만과 문화

마카오 코타이 스트립에 지난 9월 13일 파리지앵 마카오가 문을 열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샌즈(LVS) 그룹 산하 샌즈 차이나(Sands China)가 2004년 카지노 호텔인 샌즈 마카오를 개관한 지 12년 만에 마카오에 마지막으로 개장한 복합 리조트인 파리지앵 마카오는 프랑스 파리의 낭만과 화려함 속으로 여행을 떠나게 한다.

글·사진 임동근 기자



거대한 복합 리조트가 즐비한 코타이 스트립(Cotai Strip). 새로 문을 연 파리지앵 마카오 입구에 파리 에펠탑을 고스란히 옮겨온 듯한 거대한 철탑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에펠탑 옆에는 파리 개선문을 모사한 높이 30m의 건축물이 서 있고, 철탑 뒤편으로는 파리 오페라극장과 프랑스 왕궁을 떠올리는 우아한 파스텔 빛깔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빛의 도시’ 파리를 모티브로 건축된 파리지앵 마카오는 셸던 아델슨(Sheldon Adelson) 라스베이거스 샌즈 회장이 이끄는 샌즈 차이나가 코타이 스트립에 건축한 복합 리조트이다. 2004년 마카오 반도에 마카오 샌즈를 세운 샌즈 차이나는 코타이 스트립에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구현한 베네치안 마카오를 비롯해 포시즌 마카오, 더 플라자 마카오, 샌즈 코타이 스트립 등 복합 리조트를 지어 운영해 왔다.

이들 리조트는 시티 오브 드림즈, 스튜디오 시티 등과 함께 거대 복합 리조트 단지를 이루며 현재 마카오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카지노, 호텔, 쇼핑몰, 공연장, 박람회장, 엔터

테인먼트 시설 등을 갖춘 복합 리조트들은 중국,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아시아 여행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파리의 낭만과 화려함이 흐르는 건물과 실내
파리지앵 마카오는 에펠탑의 2분의 1 크기로 재현한 철탑과 3천 개의 객실, 회의시설, 레스토랑, 워터파크, 키즈 클럽, 헬스클럽, 공연장, 쇼핑몰, 카지노로 구성돼 있다.

내부 공간에는 콩코르드 광장, 오페라극장, 샹젤리제 거리와 방돔 광장, 베르사유 궁전 등 파리 지역의 낭만과 화려함이 고스란히 옮겨져 있다. 프랑스의 궁전과 성당을 장식하던 우아한 그림, 17~18세기 골동품과 양탄자 복제품, 크리스털 샹들리에, 대리석이 깔린 광장과 복도 등 프랑스 장식예술의 절정을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또 ‘오 샹젤리제’, ‘장밋빛 인생’ 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우아한 귀부인과 귀족 차림의 배우, 마임(Mime) 배우, 거리 악사와 미술가 등 이 방문객을 반기며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1 프랑스 파리를 연상시키는 파리지앵 마카오.
2 분수대. 3 입구에는 파리 개선문을 재현한 건축물이 있다. 4 에펠탑 37층 전망대에서 주변 풍광을 감상하는 방문객들.



1 분수대와 천장화가 화려한 콩코르드 광장.
2 방돔 광장 쇼핑몰.
3, 4 파리 도심을 떠오르게 하는 배우와 음악가.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축소판 에펠탑이다. 본관 건물과 연결된 7층에는 전망대와 식당이 있고, 이곳에서 엘리베이터로 40초 만에 오를 수 있는 37층에도 전망대가 마련돼 있다. 37층 전망대에서는 거대 복합 리조트가 숲을 이룬 코타이 스트립의 풍경과 마카오 도심, 마카오 타워는 물론 평온한 모습의 중국 본토까지 감상할 수 있다. 또 에펠탑에는 전구 6천 600여 개가 달려 있는데, 매일 오후 7시 20분부터 자정까지 20분 간격으로 빛과 소리의 축제가 진행돼 방문객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한다. 연인이라면 에펠탑 7층 전망대와 본관 건물을 잇는 다리 난간에 사랑의 자물쇠도 달 수 있다. 본관 건물의 황금빛 정문을 들어서면 까마득하게 높은 돔 천장이 있는 원형광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름은 ‘콩코르드 광장’. 중앙에는 파랑, 초록, 빨강으로 색깔이 변하며 시원스럽게

물줄기를 뿜어내는 청동과 황금빛의 분수대가 설치돼 있다. 돔으로 시선을 돌리면 천국을 묘사한 아름다운 천장화가 경건함을 느끼게 한다. 파리지앵 마카오는 이 광장을 중심으로 정면에는 카지노가, 좌·우측에는 베르사유 궁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운 붉은빛의 리셉션과 푸른빛 고객 서비스 센터가 들어서 있다. 특히 리셉션 벽면에서는 프랑스 신고전주의 대표적인 ‘나폴레옹의 대관식’ 그림도 볼 수 있다.

상젤리제 거리와 방돔 광장에서 즐기는 쇼핑
콩코르드 광장에서 에스칼레이터로 바로 연결되는 3층과 5층 공간은 파리의 도심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쇼핑몰이다. 총면적 2만8천㎡ 쇼핑몰에



5 아쿠아 월드의 '마리 앙투아네트 타워' 모양 워터 슬라이드. 6 '쥘 베른 비행선'을 구현한 물놀이 기구. 7 어린이 놀이 시설인 큐브 킹덤. 8 큐브 킹덤 야외 공간에 있는 회전목마.

는 고급 패션 의류와 액세서리, 가죽 제품, 귀금속과 시계 등을 취급하는 상점 150개가 들어서 있다. 또 파리의 도심처럼 거리 카페가 곳곳에 들어서 있어 여유를 즐기며 파리지앵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다. 상젤리제 거리에서는 고급 의류와 액세서리가, 몽테뉴 거리에서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가, 생토노레 거리에서는 파리 패션의 중심지답게 독특한 패션 의류와 고급 패션 아이템이 판매된다. 한편 고급 시계를 취급하는 방돔 광장 중앙에는 나폴레옹 1세의 오스테르리츠 전투 승전 기념탑 축소 모형이 세워져 있고, 거리 음

악가가 악기를 연주하며 흥을 북돋운다. 한편 실내 곳곳에는 레스토랑 9곳과 푸드 코트가 있어 간단한 스낵부터 정통 프랑스 요리, 마카오 음식, 중식과 일식까지 다채로운 요리를 즐길 수 있다. **가족 여행객 위한 놀이 시설과 엔터테인먼트**
6층에 있는 아쿠아 월드(Aqua World)와 수영장, 큐브 킹덤(Qube Kingdom)은 가족 여행객 전용 공간이다. 특히 아쿠아 월드와 수영장에서 에펠탑과 파리지앵 마카오의 우아한 외관을 감상하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아쿠아 월드와 수영장에서도 프랑스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타널형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마리 앙투아네트 타워'는 파리 인근 마을에 있는 건축물의 모습을 본 딴 것이다. 또 그물망과 슬라이드가 있는 물놀이 시설인 '쥘 베른 비행선'은 프랑스 작가 쥘 베른이 쓴 '80일간의 세



1 파리지앵 마카오의 화려한 야경. 2 객실. 3 중식당. 4 라이브 뮤직 콘서트, 브로드웨이 공연 등이 펼쳐지는 1천200석 규모 파리지앵 씨어터.



계일주'에 등장하는 열기구를 연상시키는 모양으로 제작됐다. 수영장에서는 몽마르트 언덕의 카바레 지붕에 있는 붉은 풍차도 볼 수 있다. 아쿠아 월드 옆에 있는 큐브 킹덤은 어린이를 위한 실내외 놀이시설이다. 볼 풀, 우주 로켓 주제의 등반시설, PC 게임 스테이션, 파티 룸 등이 실내에 갖춰져 있고, 야외에는 미끄럼틀이 있는 등반시설과 화전목마가 있다. 5층에는 1천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 시설인 '파리지앵 씨어터'가 있다. 라이브 뮤직 콘서트, 브로드웨이 공연, 라스베이거스 스타일 쇼 등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공간이다. 오는 11월 13일까지는 마이클 잭슨의 음악 유산을 시청각으로 전하는 연극 콘서트 '스릴러 라이브'(Thriller Live)가 진행된다.

에펠탑이 보이는 객실에서의 하룻밤

파리지앵 마카오에는 현대 프랑식식으로 디자인된 객실 3천여 개가 있다. 객실 내부는 에펠탑, 파리 지도, 도심 거리 등을 벽지에 담아 파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했다. 객실 중 1천여 곳에서는 창밖으로 에펠탑의 경관을 감상하며 낭만적인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객실은 킹사이즈 또는 퀸사이즈 침대가 있는 33㎡ 크기 디럭스 룸과 에펠타워 룸, 부모와 자녀의 침실이 분리돼 있는 패밀리 룸(47㎡), 별도 거실이 있는 리움 스위트(72㎡) 등으로 구분돼 있다. 객실은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패밀리 룸에는 어린 자녀를 위해 2층 침대를 놓아두기도 했다. 한편 파리지앵 마카오는 포시즌 쇼핑몰, 베네시안 마카오와 연결돼 있어 방문객은 샌즈 차이나가 운영하는 복합 리조트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❶

INFORMATION



▶ 여행 정보



항공편

에어마카오가 매일 2회, 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부산이 매일 1회 직항편을 운항한다. 10월부터는 에어서울과 제주항공이 추가로 직항 노선을 운항한다. 비행시간은 약 3시간 30분이다.



기후, 시차

연평균 기온은 20도 이상으로 온화하며 비가 많이 내린다.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은 10~12월로 맑은 날이 많고, 습도가 낮은 편이다. 시간은 한국보다 1시간 늦다.



화폐

마카오 화폐 단위는 파타카(MOP)이지만, 환율이 거의 같은 홍콩달러가 주로 통용된다. 9월 18일 기준 1홍콩달러는 약 145원이다. 재환전을 위해서 파타카보다 홍콩달러로 환전하는 것이 좋다.

▶ 둘러볼 만한 마카오 명소



마카오 타워

높이 338m로, 61층(223m) 전망대에서는 중국 본토까지 건너다볼 수 있다. 시속 40~60km로 자유 낙하하는 스카이 점프, 타워

바깥 난간을 거닐며 가슴 떨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 익스, 시속 200km로 30초간 떨어져 내리는 번지점프를 즐길 수 있다.

▶ 파리지앵 마카오 개장 행사



코타이 스트립 새 명물 탄생

마카오 코타이 스트립의 새 복합 리조트인 파리지앵 마카오가 지난 9월 13일 오후 8시 18분 셀던 아델스 라스베이거스 샌즈 회장, 윌프레드 웡 샌즈 차이나 사장, 소니아 찬 마카오 특별행정수반 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에 공개됐다.

에펠탑 아래 공간에서 진행된 개막식은 사자춤과 벨기에 가수 라라 파비안의 무대, 파리의 낭만과 예술을 엿볼 수 있는 발레와 뮤지컬 공연 형식으로 열렸다. 또 화려한 불꽃놀이와 에펠탑 라이트 쇼가 함께 진행돼 참석자와 코타이 스트립을 가득 메운 일반 시민에게 아름다운 밤 풍경을 선사했다.

셀던 아델스 라스베이거스 샌즈 회장은 개장 인사말을 통해 "카지노 고객이 모이던 곳이 이제 다양한 액티비티와 아트랙션,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지로 진화했다"며 "지금 파리지앵 마카오를 가족으로 맞는 코타이 스트립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경이로운 관광지 중 한 곳이 됐다"고 말했다.



성 바오로 성당 유적

16세기 후반 예수회 선교사들이 건축한 것으로 1835년 화재로 대부분 소실돼 건물 정면 벽면과 계단 일부만 남아 있다. 중앙에 있는 문으로 들어서면 성당 발굴 장소가 유리로 덮여 있고, 지하에는 순교자 무덤과 유해가 안치된 성소가 있다.



세나도 광장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마카오의 상징이다. 광장 주변으로는 포르투갈 양식 시의회 빌딩, 고딕양식 중앙 우체국 등 외관이 아름다운 건물이 많다. 포르투갈에서 가져온 돌을 깔아 만든 물결무늬 모양 노면이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 광장에는 카페, 음식점, 기념품점이 들어서 있다.